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❹ 공간 상징 上



▶한줄요약
방위를 정하는 것은 그에 맞는 자리를 임하기 위함이다.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약속

방위의 설정

우리는 실제의 자연 방위와 무관하게 공간을 인식한다. 동서, 남북, 좌우 등으로 공간을 설정하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이며 일종의 약속이다. 공간을 체계적인 세계로 구조화하는 것이기에, 출발점을 잊어버리면 질서가 흐트러지고 만다. 상징적인 의례를 행하면서 공간의 약속을 반영하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게 설명하여 혼란을 가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공간에 대한 인식을 2회로 나누어 풀어나가고자 한다.

동양문화권의 방위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쪽을 설정하는 일이다. 실제 방위와 무관하게, 그 공간의 주인공이 자리한 곳을 북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모신 불단이 북쪽에 해당한다. 유교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이다. 신위(神位)를 모신 곳이 북쪽이니, 같은 공간에서도 제사상을 놓는 위치에 따라 방위가 바뀌게 된다.

법당에서 불단을 정하고 나면 이에 따라 출입문의 위치와 내부를 구성한다. 자연히 북쪽을 기준으로 서쪽에 영단을 구성하고, 동쪽에 신중단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불단과 맞은편의 직선거리에 있는 모든 공간을 '어간(御間)'이라 부른다. 이 공간은 신성한 영역에 해당하여, 일반인은 어간문으로 드나들 수 없고 양 측면 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법당은 삼단체계로 구성된다. 법당에 부처님, 신중, 영가를 모시는 구조는 한국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는 유교이념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불교가 처한 현실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찰의 존속은 제사 개념과 결합함으로써 가능한 시대였고, 이에 따라 하단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전각을 확장하기 힘들어, 주 법당에 여러 기능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작용했으리라 짐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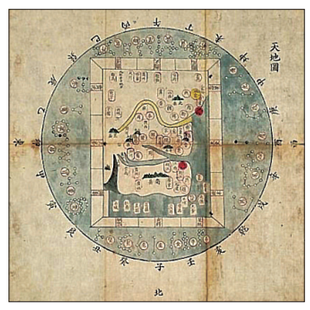
따라서 신심 깊은 신도들은 법당에 들어오면, 상단 · 중단에 이어 영단에도 절을 올리며 영가와 고혼의 천도를 빌어주고 있다. 법당은 불교에서 신앙하는 모든 초월적 존재를 모신 가운데,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통합적 의례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법당의 서쪽에 두는 영단의 위치는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해가 지는 서쪽은 죽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서방정토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곳은 번뇌도 고통도 없는 이상세계로, 불자들은 누구나 그곳으로 가기를 꿈꾸는 것이다. 이는 유교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곳을 북방으로 보아, 무덤을 북쪽에 두는 것과 차이를 지닌다.

법당 외벽에 반야용선(般若龍船)을 그리는 것도, 법당 전체가 서방정토를 향하는 반야용선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먼바다를 건너 피안의 정토가 있어, 인로왕보살이 이끌고 여러 불보살이 지켜주는 가운데 불법을 수호하는 용이 힘차게 헤엄쳐 나아가는 것이다. 법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니, 그 가르침을 새기며 살아간다면 누구든 정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방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반야용선. 신륵사 극락전 외벽화 ©성보문화재연구원



성인의 방향에서 본 천지도. ©국립중앙박물관



법당(북)을 중심으로 동서를 결정함. 칠장사 대웅전 ©성보문화재연구원

반야용선이 나아가는 방향 또한 언제나 '서방'이 된다. 법당 안과 똑같이 마주한 곳을 북쪽으로 삼아 배는 서쪽을 향해 고해(苦海)를 달리는 것이다. 따라서 법당의 영단을 서쪽이 아닌 곳에 둔다면, 이러한 총체적인 상징체계 또한 힘을 잃고 만다.

법당 서쪽 영단은 중요한 상징
번뇌 · 고통 없는 이상세계 뜻해
옛 사람들의 공간 부여 상징은
음양과 방위 · 좌우로 이해 가능

동서의 원리

이러한 구도는 그림 속에서도, 사찰구조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먼저 불화를 살펴보면, 감로도(甘露圖)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감로도의 중앙에는 천도재를 지내는 장면이 있고, 위쪽에는 이들을 구원하는 여러 불보살이 배치되어 있다. 나머지 장면은 윤회하는 육도 존재의 다양한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감로도에는 서방정토로 안내하는 역할의 '인로왕보살'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그가 위치한 곳은 늘 화면의 서쪽이 된다. 따라서 그림을 바라보는 이들은, 서방정토에서 옷자락을 휘날리며 영가를 인도하기 위해 내려오는 인로왕보살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동과 서를 함께 표현한 그림을 살펴보자. 약사불은 중생의 병고를 치유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재난에서 구제하는 역할을 지닌 부처님이다. 약사불의 양쪽에는 해를 상징하는 일광보살, 달을 상징하는 월광보살이 협시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속의 일광보살은 해가 뜨는 동쪽에, 월광보살은 해가 지는 서쪽에 그리게 마련이다.

두 보살은 각기 붉은 해와 흰 달을 상징으로 삼고 있다.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에는 두 보살이 쓴 보관(寶冠)에 해와 달을 그렸고, '범어사 대웅전 벽화'에는 각자 들고 있는 연꽃 위로 해와 달이 떠오른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동학사 삼성각 칠성도'의 두 보살은 해와 달을 양손으로 안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지녔다.

이러한 법칙은 전체 사찰구조에서부터 적용된다. 사찰의 배치 또한 실제 방위와 무관하게, 상징적으로는 본전(本殿)을 북쪽에 남향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전에 진입하는 세로축을 중심으로 동서가 구분되고, 본전의 맞은편은 자연히 남방이 된다. 이처럼 사찰구조, 법당구조, 그림 속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세부구조가 전체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되풀이되는 프랙털(fractal) 원리를 지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주 부석사의 건물 배치는 독특하다. 부석사는 천왕문에서부터 본전인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3단계에 걸쳐 9단의 석축을 쌓았다. 그 정점에 무량수전을 두고 서방 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불을 모셨다. 이는 하생 · 중생 · 상생의 3생에 각각 하품 · 중품 · 상품을 둔 '구품왕생'을 뜻한다. 아홉 단계를 거쳐 궁극에 이르는 극락정토 사상을 건축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무량수전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안양루의 '안양(安陽)' 또한 불교에서 극락을 일컫는 이름이다.

무량수전도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북쪽에 자리해 남향한 법당이지만, 내부에 모신 아미타불은 특이하게도 법당 밖에서 봤을 때 서쪽에 좌정해 있다. 일반적으로 법당의 방향과 불단의 방향이 같지만, 무량수전은 다른 것이다. 이는 사찰의 전체구조에서 아미타불이 서방에 머문다는 의미를 부각한 것이라 하겠다.

좌우의 주체

공간 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의 설정뿐만 아니라 좌우의 개념이다. 불상이나 불화에서 협시를 설명할 때는, 주존을 중심으로 '좌우'를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주존의 방향에서 봤을 때 좌측은 동쪽이고 우측은 서쪽에 해당한다. 좌측은 근본이 되고 우측은 작용을 나타낸다고 하여, 이를 '좌체우용(左體右用)'이라 부른다. 이러한 관념은 유교문화권에서 성인남면(聖人南面), 즉 성인이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배북향남(背北向南)의 방위를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공간에서 좌우 개념을 주체와 무관하게 읽으면 혼동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사례로써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전라도 · 경상도 · 충청도 등의 각 도를 남북으로 나누지 않고 좌우로 나누어, 전라좌도 · 전라우도라 표현하였다.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전라좌도'라 하면 당연히 서쪽의 평야지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실제는 반대로 전라좌도가 동쪽의 산악지대를, 전라우도는 서쪽의 평야지대를 일컫는 것이었다. 이는 왕이 있는 궁궐에서 바라봤을 때 동쪽이 좌이고 서쪽이 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좌청룡 우백호'라는 용어가 있다. '남주작 북현무'와 함께 사방을 지키는 사신도(四神圖)에서 나온 말로, 좌우에서 든든하게 보호하는 존재를 나타낸다. 오행에 따르면 '동쪽=청색, 서쪽=백색'이니 청룡(靑龍)은 동쪽, 백호(白虎)는 서쪽이다. 성인의 자리에서 남향했을 때 좌측에 동쪽을 상징하는 청룡이 오고, 우측에 서쪽을 나타내는 백호가 오게 되는 것이다. 복잡한 듯하지만, 방위는 변하지 않으니 주체만 염두에 두면 된다.

이에 대해 미술사학자 허균 선생은 전통건축을 사례로 핵심을 짚은 바 있다. 왕릉과 서원의 삼문(三門)을 출입할 때는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오는 '동입서출(東入西出)'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안내판에는 이를 "오른쪽(동)으로 들어가고 왼쪽(서)으로 나온다"고 풀이해놓아,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입출 개념 또한 공간의 주체를 중심으로 정의된다.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입은 '들어간다'가 아니라 '들어온다', 출은 '나온다'가 아니라 '나간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쪽을 오른쪽, 서쪽을 왼쪽으로 설명한 것 또한 객체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라 맞지 않다고 보았다. 대다수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명이지만 공간의 질서에는 어긋나는 셈이다.

아울러 이러한 설정은 인사(人事)를 천계의 운행질서와 나란히 하기 위함이라 보았다. 옛사람들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지는 것을 '좌선(左旋)'이라 표현하였다. 운행 시작점은 동쪽, 즉 왼쪽이고 종착점은 서쪽, 즉 오른쪽이 된다. 들어온다는 것은 문 안의 생활이 시작됨을 뜻하고, 나간다는 것은 안에서의 일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문(왼쪽)을 입문으로, 서문(오른쪽)을 출문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동서와 좌우는 음양(陰陽)의 원리를 기반으로 함은 물론이다. 음양 사상은 상반된 두 기운이 상호작용하여 만물의 근원을 이루게 된다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양의 기운은 하늘 · 해 · 정신 · 생명 · 동쪽 · 남자 · 홀수 등이 해당하며, 이에 대응하는 음의 기운은 땅 · 달 · 육체 · 죽음 · 서쪽 · 여자 · 짝수 등이다.

그렇지만 음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청색은 백색과 함께하면 양이지만, 적색과 함께하면 음이 된다. 낮이 지나 밤이 되고 밤이 지나 아침이 오듯이,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은 어느 하나만으로 존재할 수 없이 합일된 세계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방위를 정하는 것은 그에 맞는 자리에 임하기 위함이다. 옛사람들의 공간에 부여한 상징은, 음양의 원리와 함께 방위 · 좌우의 설정을 이해하면 쉽게 읽을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봉행 대조사전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봉안 및 낙성대법회

◈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점안식
▶ 일시 : 2023년 3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 삼광사 대조사전

◈ 대조사전 낙성대법회
▶ 일시 : 2023년 3월 10일 오전 11시
▶ 장소 : 삼광사 대조사전

주 지 영제 스님
교 무 덕중 스님
재 무 무성 스님
신도회장 이 경 훈
사부대중 일동 합장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 051)808-7111~6 http://www.samkwangsa.or.kr/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현대불교신문

NAVER 현대불교신문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12